

# 논술고사 문제지

< 문학부/커뮤니케이션학부 >

##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2. 답안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한 글자 수임.
3. 답안 작성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펜이나 연필 가운데 통일된 한 종류의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함.
4. 답안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답안 이외의 불필요한 낙서나 이와 유사한 표현 또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문제 1: 30%, 500~600자>

제시문 [가]와 [나]에서 그린버그와 세종이 거둔 성공의 공통 요인을 찾아 이를 구체적으로 논하라.

<문제 2: 30%, 500~600자>

제시문 [다]의 논거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에 나타난 그린버그의 문제 해결 과정을 논하라.

[가] 오전 1시 21분 13초, 우리는 부기장이 말하고자 했던 것을 알고 있다. “기장님, 후행 대책 없이 시계 접근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바깥 날씨가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지 못했다. …(중략)… 기관사도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육안에만 의존해서 착륙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상 레이더에 뜬 걸 보세요. 계속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중략)…

오전 1시 41분 59초, 부기장이 혼잣말을 했다. “안 보이잖아?”

오전 1시 42분 19초, 부기장이 말했다. “착륙, 포기합니다.” 그는 결국 힌트를 주다가 동료에게 권유하는 방식으로 어조를 높였다. 그는 착륙을 취소하고 싶었던 것이다. 훗날 조사를 통해 그 시점에 부기장이 조종권을 넘겨받고 조종간을 당겼더라면, 니미즈 활에 충돌하지 않고 재착륙을 시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부기장은 기장이 명백히 잘못하고 있을 경우, 그렇게 행동하라고 훈련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교실에서 배우는 내용일 뿐이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은 엄연히 달랐다. 실수를 하면 손으로 등을 얻어맞을 수도 있는 것이 조종실의 현실이었다.

오전 1시 42분 20초, 기관사가 말했다. “안 보이잖아.”

결국 재앙이 그들 앞에 얼굴을 드러낼 때가 되어서야 부기장과 기관사가 입을 열었다. 그들은 기장이 ‘고 어라운드’하기를, 조종간을 당겨 다시 착륙을 시도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엄격한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조종사, 부조종사, 기관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단절되었고 1997년 8월 5일, 콧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다.

2000년, 대한항공은 데이비드 그린버그를 비행 담당 임원으로 영입한다. 그린버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그가 대한항공의 문제를 뿌리부터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면 내놓을 수 없던 것이었다. 그린버그는 ‘대한항공의 공용어는 영어다. 만약 대한항공의 조종사로 남고 싶다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칙을 세웠다. “케네디공항의 러시아워에 손짓, 발짓으로 대화할 수 없지요. 어디까지나 대

화로 풀어가야 하므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끼리 영어로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외국인과 중요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영어는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린버그는 조종사들에게 또 다른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애썼다. 그들이 문화적 유산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일단 조종석에 앉았을 때는 기존의 역할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었고, 언어는 그 전환을 이끌어내는 열쇠였다. 영어로는 한국어의 복잡한 경어체계를 사용할 수 없지 않은가.

그린버그의 개혁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가 하지 않은 일’에 있었다. 그는 절망에 빠진 대한항공 조종사들을 몽땅 해고하고 권력 간격이 낮은 문화권의 조종사로 대체하지 않았다. 그는 문화적 유산이 문제이고, 그 힘은 강력하고 널리 퍼져 있으며 본래의 유용성이 사라진 후에도 오래도록 지속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문화적 유산을 떨쳐낼 수 없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한국인이 스스로의 문화적 기원에 솔직해지고 항공 세계와 맞지 않는 부분과 정면으로 대결할 의향이 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결국 그는 하키선수로부터 소프트웨어 재벌, 인수합병 변호사까지 모든 이들이 누렸던 기회를 대한항공 파일럿에게도 제공했다. 일과 삶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말이다.

**-말콤 글래드웰, 『아웃라이어』**

[나] “정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어떤 제도가 더 좋은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소?” …(중략)… 허를 찔린 신하들은 허둥거렸지만 세종은 침착하게 여론조사를 준비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집집마다 찾아가 백성들에게 의견을 물어 본 결과 찬성이 9만 8000여 가구, 반대가 7만 4000여 가구였다. 찬성이 우세했다. 찬성이 압도적인 곳은 삼남과 같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높은 지역이었고, 반대가 많은 곳은 척박한 농지가 많은 한강 이북의 지역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지역적으로 이해관계에 얽혀 편차가 심하고 신하들도 반대하자 세종은 공법개혁을 일단 유보했다. 세종은 반대하는 신하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다. 이유는 명확했다. 공법개혁을 하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어 국가재정은 튼튼해지지만 문제는 누구도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특히 부유한 관리들은 세금을 덜 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했다. 다시 1년이 지나자 세종은 공법개혁 문제를 또 꺼냈다. …(중략)… 세종도 물러서지 않았다. 거듭 개혁안의 수정을 지시했다. 세금처럼 민감한 문제일수록 반대편의 동의 없이는 성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세종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챙겼다.

마침내 공법개혁을 제안한 지 15년 만에, 즉 세종 24년에 토질과 수확량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 새로운 제도가 통과되었다. 손실담험법과 정액세제를 절충하여 ‘연분 9등-전분 6등’이라는 새로운 징수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만장일치로 이뤄낸 결과였기에 그 의미는 더욱 컸다.

세종은 프로젝트를 언제나 중장기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전에 전문가로 하여금 충분히 연구하게 했다. 또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 프로젝트의 성공과 그 영향에 대해 확신이 설 때까지 그 문제를 중신들끼리 충분히 논의하도록 했다. 그리고 중신들의 의견이 하나로 결집되지 않으면 여론조사를 통해 백성들의 의견을 모았다. 세종은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게 인식한 왕이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채택했고, 채택을 한 경우에도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시행했다.

**-정도상 & 최재혁, 『백성을 섬긴 왕, 세종이 꿈꾼 나라』**

[다] E. H. 카는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과의 상호작용의 부단한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지만, 그 상호작용, 대화의 성격과 질이 문제의 핵심이다. ‘대화’보다는 넓은 의미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 역사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중략)… 어떤 주제를 다루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보자는 게 커뮤니케이션사의 취지다.

역사를 선의로 이용할 경우에도 일반적인 역사 기술 방법 자체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있다. 역사가들은 역사의 객관성 확보와 자료 활용의 용이성 때문에 주로 명시지(明示知)에 의존하며 암묵지(暗黙知)를 배척한다. 명시지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쉬운 지식인 반면, 암묵지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지식이다. 객관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역사가들이 명시지를 선호하는 건 당연하지만, 암묵지를 전면 배척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역사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체제, 제도, 법, 규칙, 선거, 사건, 사고 등은 명시지의 영역인 반면, 정신, 자세, 의식, 전통, 습속, 관습, 관행, 기질 등은 암묵지의 영역이다. 역사가 후자를 무시하고 전자 위주로 기록된다고 생각해보라. 왜곡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역사 기술은 인간을 왜소하게 만들고 성찰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게끔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기존 역사 기술은 커뮤니케이션과 과정을 소홀히 하면서 구조와 결과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거대담론의 폭력성’을 은연중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강준만, 『역사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문제 3: 40%, 1,000~1,200자>

제시문 [가]를 읽고 자아와 자서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나]에서 예로 든 것과 같은 자서전의 경우에는 자아와 자서전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제시문 [다]를 참조하여 논하라.

[가] 문학적 자서전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보다 자연스럽게 간결하게, 그리고 에피소드와 연결된 설명을 하게 될 때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아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철학적 개념을 암시해준다. 최근의 한 저서에서는 이 점이 분명히 강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자서전 장르를 실질적으로 개척한 성 어거스틴의 『고백 Confessions』에서부터 그 종언이라 할 수 있는 사무엘 베케트까지 검토되고 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탐구를 그의 진실한 인생, 그의 진실한 자아를 위한 탐구로 보았고, 그래서 자서전을 진실한 기억, 실재의 탐구로 간주한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의 진실한 삶은 신과 섭리에 의해 주어진 것이며, 내러티브(자서전 이야기)의 고유한 독자적 질서는 기억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형식, 섭리로서 주어진 존재에 대한 가장 진실한 형식을 반영한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진실한 기억은 현실세계를 반영하며, 내러티브가 그 매체라고 인정한다. 그의 생각은 내러티브적 실재론(realism)이며, 그로부터 출현하는 자아는 계시의 선물, 이성에 의해 발효되는 것이다.

18세기의 지암바티스타 비코와 어거스틴을 대조해보기로 하자. 비코는 마음의 힘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어거스틴의 내러티브적 실재론에 눈을 돌린다. 비코에게 삶이란, 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정신적 행위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지 신의 행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삶의 이야기적 측면은 우리의 활동에 의한 것이지 신의 그것이 아닌 것이다. 비록 비코가 일종의 합리주의에 의해 보호받고는 있지만—그 합리주의가 일반적으로 그런 입장과 연결되어 있는 회의주의로부터 그를 지켜주었다—그는 아마도 최초의 급진적 구성주의자였을 것이다. 그리고 약 반세기 뒤의 장-자크 루소도, 비코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또 자기가 살고 있던 혁명적 시대의 새로운 회의주의에 의해 고무되어, 어거스틴의 확고하고도

순수한 내러티브적 실재론에 대해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다. 루소의 『고백록 *Confessions*』은 대담한 회의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그로부터 2세기 뒤에, 베케트는 비코가 어거스틴의 내러티브적 실재론을 이성적으로 거부한 것을 지지하고 루소의 왜곡된 회의주의에도 공감한다. 하지만 그는 내러티브를 삶의 초월적 질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한다. 실제로, 그는 어떤 초월적인 질서가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을 거부한다. 그의 이런 생각은 철저한 허구주의(fictionalism)이며, 그의 사명은 삶에 대해 글을 쓰는 것—문학만이 아니라—을 그 내러티브적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삶은 문제적인 것으로서, 관습적인 장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존 브루너, 『이야기 만들기』

[나] 알튀세르(Louis Althusser)는 프랑스의 철학자로, 1940년 전쟁포로가 되어 심리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적이 있으며 1947년에도 심각한 우울증 증세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전기요법 치료를 받았다. 이후 그는 1980년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아내를 교살한 죄로 병원에 강제 수용되었으나, 이듬해 금치산자 판정을 받고 면소(免訴)되었다. 그는 1985년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집필했는데, 그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이제까지 그 누구도 하기를 원치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것을 했다. 즉, 마치 제3자의 일인 것처럼 나는 모든 ‘자료들’을 내가 겪은 것에 비추어 정리하고 대조했으며 그 역으로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온전한 정신과 책임하에 마침내 나 자신이 공개적으로 나를 해명하기 위해 말문을 열기로 결정한 것이다. …(중략)… 나는 내가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료하게 해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런 경험에 대한 비판적 ‘고백’의 선례가 전혀 없었던 하나의 구체적 경험, 가장 심각하고 가장 끔찍한 형태로 내가 겪은 한 경험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경험은 분명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중략)… 내가 일러두고자 하는 것은 이 글이 일기도 회상록도 자서전도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것을 희생시키면서 내가 오직 드러내고자 한 것, 그것은 바로 내 존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또 나의 존재를 이러한 형태로, 즉 그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알아보게 되고 타인들도 나를 알아볼 수 있으리라 여겨지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던 모든 정서적 감정 상태들의 충격이다.”

[다] 자서전의 문제는 고유명사와의 관련 하에 연구되어야 한다. 책으로 인쇄된 텍스트의 경우에 그 언술 행위는 일반적으로 책의 표지와 간지 위에, 제목 상단 혹은 하단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의 것으로 인정된다. 바로 그 이름 속에 우리가 저자라고 부르는 존재가 그대로 요약되는 것이다. 그것은 확실한 텍스트 외부의 요소가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징표이며, 결국 텍스트의 언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자기에게 물을 것을 요구하는 실제 인물을 지칭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텍스트 내에서 작가가 나타나는 것은 이 단 한 번의 이름으로 족하다. 그렇지만 이 이름이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중요하고, 그것은 사회적인 관례에 의해 텍스트의 언술 행위에 대해 실제 인물이 책임을 약속하는 행위에 연결된다. …(중략)…

자서전은 저자(책 표지에 자기 이름을 걸고 모습을 드러내는 대로의 저자)와 그 이야기의 화자, 또 그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인물의 이름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상정한다. …(중략)… 저자의 이름이 들어간 그 페이지를 텍스트에 포함시키게 되면 (저자-화자-주인공의) 동일성이라는, 자서전을 정의해주는 보편적인 텍스트 내적 기준이 주어진다. 자서전의 규약이란 결국 표지에 기록되는 작가의 이름으로 귀결되는 이러한 동일성의 문제를 텍스트 내에서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필립 르죈, 『자서전의 규약』